

# 두뇌보완계획 기출문제풀이

2020년 7급 PSAT 모의평가 언어논리

## 김명석·이해황

생각실험실

**ithink.kr**

수험생 분들께.

파일을 구매해주어 고맙습니다. 이 자료로 공부한 모든 분들의 합격을 바랍니다. 전자책 판매를 하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수험생 커뮤니티나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교재를 PDF로 판매하거나, 몇 대학 고시반에서 무료 공유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2019년부터 불법판매자 및 공유자를 제보받아 형사고소해왔으며, 적발된 분들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일은 제법 성가십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구매한 소비자를 위해서, 또 저자들이 계속해서 좋은 책을 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발시 원칙적으로 전부 고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파일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무료로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판매나 공유를 목격했다면, 판매글/채팅방 링크, 거래내역, 받은 파일 등을 [artofkorean@gmail.com](mailto:artofkorean@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기소가 가능할 경우 사례금 1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구매자는 처벌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2020년에 이런 식으로 세 분께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다만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최초 신고자 분께만 지급합니다.

부디 뜻한 바 이루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부하며 생기는 의문은 [오르비클래스 제 내용질문 게시판](https://class.orbi.kr/teacher/177/question)에 남겨주세요.

이해황

## 총평

PSAT 언어논리는 특정 개념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지식 측정 시험이 아니다. 제시된 바를 바탕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를 묻는 역량 평가 시험임을 명심하라.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 문01~문07은 매우 쉽다. 고1이나 고2 국어 모의고사 수준이다. 반면 문13, 문14, 문18, 문25 따위는 5급 공채 PSAT에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수준이 높다. 따라서 쉬운 문제는 빠르게 풀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여기서 아낀 시간을 고난도 문항에 쓸 수 있도록 시간 분배를 해야 한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문16과 문17 같은 논리퀴즈는 어렵지는 않았다. 다만 지원자의 실력이 높아진다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경채 기출문제 수준의 논리퀴즈는 모두 풀 수 있도록 준비해둬야 한다. 『두뇌보완계획100』을 기본서로 공부해두는 것도 추천한다. 문06, 문12, 문19, 문23 등도 넓게 보면 이해능력 문제의 탈을 쓴 논리퀴즈로 볼 수 있다. 자연언어 문장으로 된 반드시 추론<sup>연역추론</sup>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은 PSAT나 LEET 성적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문항별로 보면, 문01과 문02 같은 내용일치 유형은 오답을 만드는 패턴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시간 선후를 바꾼다든가, 제시문에서 부정하는 것을 긍정한다든가, 대립되는 개념을 바꿔치기한다든가. 만약 이런 유형에 약하다면, 지금까지 전개년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PSAT<sup>이하 민경채</sup> 기출문제를 풀면서 정답 선택지를 만든 방식, 오답 선택지를 만든 방식을 정리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문07, 문13, 문14, 문24, 문25 같은 유형은 7급 PSAT 언어논리 고유의 스타일로서 앞으로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될 것이라 예상한다.

문19에서 다른 ‘A는 모두 B이다’라는 문장과 A라는 성질을 가진 대상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는 2014년 5급 공채 언어논리 문27, 2018학년도 LEET 추리논증 문15, 2019년 5급공채 언어논리 문11 등에서 출제된 적 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5급 공채 PSAT 언어논리, LEET 추리논증 기출문제에서 논리학 개념을 다룬 제시문만을 읽어보거나 이를 잘 정리한 책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문항 정보

번호	문두 형식	주된 평가	문제유형	제시문	난이도
문01	알 수 있는	이해추론	글의 이해와 추론	한국사	하
문02	알 수 있는	이해추론	글의 이해와 추론	한국사	하+
문03	논지로	이해	글의 논지 파악	의료보건	하+
문04	들어갈 내용으로	이해추론	원리 이해와 적용	윤리	중+
문05	알 수 있는	이해추론	대화의 이해와 추론	의료보건행정	중+
문06	들어갈 내용으로	이해표현	대화의 이해와 표현	행정사무	하-
문07	수정한 것으로	이해표현	대화의 이해와 추론	행정사무	중
문08	에 대한 판단으로	이해추론	글의 이해와 분류	생명현상	중
문09	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추론	현상의 이해와 추론	생명현상	상-
문10	들어갈 진술로	이해표현	견해의 이해와 표현	경제	중+
문11	추론할 수 있는	이해추론	현상의 이해와 추론	생명현상	상-
문12	추가해야 할 전제로	추론	필요한 전제 찾기	교육정책	중
문13	들어갈 내용으로	이해표현추론	쟁점의 이해와 표현	실정 법규	상
문14	을 바르게 적용한	이해추론비판	규정 이해와 적용	실정 법규	상
문15	반드시 참인	추론	반드시 추론	기타	중+
문16	반드시 참인	추론	논리 퍼즐	기타	중
문17	반드시 참인	추론	논리 퍼즐	기타	상-
문18	에 대한 판단으로	추론	정보의 도식화와 추론	경영	상+
문19	에 대한 분석으로	추론비판	견해의 추론과 평가	논리	상
문20	을 적용한 것으로	비판	논증의 분류와 평가	논리	상-
문21	가 강화하는	비판	현상의 이해와 평가	생명현상	중
문22	을 강화하는	비판	현상의 이해와 평가	과학 방법	중
문23	논쟁을 분석한	비판	견해의 비교와 평가	윤리	상-
문24	의 내용으로	표현비판	규약의 평가와 표현	실정 법규	중
문25	에 대한 분석으로	추론비판	규약의 적용과 평가	실정 법규	상+

문1.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3·1운동 직후 상하이에 모여든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조소앙이 기초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채택했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기초할 때 조소앙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부 명칭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하자고 했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문구가 담기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이란 한국인들이 만든 ‘민국’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민국’이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의미가 담긴 용어다. 조소앙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대한제국 황제가 국민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국권을 일제에 넘겼다고 말하면서 국민은 국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밝힌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선언에는 “구한국 마지막 날은 신한국 최초의 날”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신한국’이란 말 그대로 ‘새로운 한국’을 의미한다. 조소앙은 대한제국을 대신할 ‘새로운 한국’이란 다른 아닌 한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말했다.

조소앙의 주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독립운동가들은 황제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194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 건국강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1948년에 소집된 제헌국회도 대한민국임시헌장에 담긴 정신을 계승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제헌국회는 제헌헌법을 만들었는데, 이 헌법에 우리나라의 명칭을 ‘대한민국’이라고 한 내용이 있다.

- 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통해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공포했다.
- ② 조소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동단결선언을 만들었다.
- ③ 대한민국임시헌장이 공포되기 전에는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독립운동가가 없었다.
- ④ 제헌국회는 대한제국의 정치 제도를 계승하기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
- 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 데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은 민주공화제를 받아들이는 데 합의했다.

풀이

문두에서 “알 수 있는 것은?”이라는 문는 문항은 글과 부합하는 선택지나 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르는 문제다. 여기서 “글과 부합”은 “글과 일치함”을 뜻한다. 거짓이다 없애기, 이고 없애기, 이고 넣기 같은 아주 단순한 추론을 써서 글로부터 곧장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모두 “부합”에 해당한다. PSAT 언어논리에서 “추론”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두 “반드시 추론”을 뜻한다.

“알 수 있는 것은?”이라는 문는 문항은 대체로 선택지를 먼저 읽는 것이 낫다. 무엇을 주목해서 읽어야 할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지에 나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대한민국임시헌장”, “조소앙”, “대동단결선언”, “제헌국회”, “한국”이라는 명칭,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따위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 낱말들을 밑줄 치며 제시문을 읽는 것이 좋겠다. 제시문을 읽어나가면서 선택지를 하나씩 따지면 되겠다.

글에 따르면 임시정부를 만드는 첫걸음으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채택했고 조소앙이 이를 기초했다. 건국강령은 1941년 발표되었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의 공포 시점은 글에 나와 있지 않다. 적어도 선택지 ①은 글에서 알 수 없는 주장이다. 임시정부는 삼일운동 후에 만들어졌고, 대동단결선언은 삼일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조소앙이 발표한 것이다. 선택지 ②는 시간 선후를 고려했을 때 명백히 거짓이므로 알 수 없다. 조소앙이 독립운동가인지 글에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맥락상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하나로 읽을 수 있다. 조소앙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의 기초를 놓기 전에 이미 대동단결선언에서 “한국”을 썼다. 선택지 ③은 거짓이고, 거짓이 아니라 하더라도 글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선택지 ④는 명백히 거짓인 주장이라 알 수 없는 주장이다. 물론 명칭에 담긴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차이를 글로부터 읽어낸 이들에게만 명백하다. 선택지 ⑤에서 눈에 띄는 낱말은 “합의”다. 첫째 문단의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셋째 문단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와 “뜻을 모았다”로부터 독립운동가들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택지 ⑤가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문고 답하기

해해: 명백히 거짓임을 알 수 있는 선택지도 “알 수 있는 것은?”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명명: 앞서 설명했듯 알 수 있는 선택지란 “글과 부합하는 선택지나 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명백히 거짓임을 알 수 있는 선택지”는 글과 부합하는 선택지도 아니고 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선택지도 아닙니다.

해해: 명백히 거짓임을 알 수 있는 선택지는 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닌가요? 거짓임을 추론할 수 있잖아요.

명명: 재미난 물음이네요. 우리가 문장 ㄱ을 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ㄱ은 거짓이다”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죠.

해해: 내 말이 맞잖아요. ㄱ을 알면 ㄱ이 거짓이라는 것도 안다고요.

명명: 정확히 말해야 해요. 우리는 “ㄱ이 거짓이다”를 아는 것이 아니라 “ㄱ이 거짓이다가 거짓이다”를 아는 거죠.

해해: 아 그럼 우리는 선택지 ②를 아는 게 아니라 선택지 ②가 거짓임을 아는 거네요.

명명: 맞아요. 선택지 ②의 참임과 선택지 ②의 거짓임은 다른 명제죠.

해해: 그럼 우리는 한 명제가 거짓임을 알 수 있듯이 거짓인 명제도 알 수 있나요?

명명: 거짓인 명제는 알 수 없어요. 일상 말에서 “나는  $1 + 1 = 3$ 이라는 것을 안다”는 매우 어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밑줄 친 문장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X$ 를 안다”는 “나는 까닭을 갖고  $X$ 를 참으로 여기며  $X$ 는 참말로 참이다”를 뜻합니다. 김명석, 『과학방법』 따라서 앞 문장을 적절하게 바꾸려면 밑줄 친 문장이 참이 되도록 “나는  $1 + 1 = 3$ 이라는 것이 거짓임을 안다”라고 바꾸거나 “나는  $1 + 1 = 2$ 라는 것을 안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 저자 소개

### 김명석

물리학과 수학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철학박사를 받은 다음 경북대 기초과학 연구소 연구초빙교수,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 PSAT 전문관, 국민대학교 교수로 연구하고 일하고 가르쳤습니다. 현재 생각실험실 대표연구원입니다. 여태 쓴 논문으로는 「사유의 조건으로서 사랑의 원리」, 「데이빗슨의 인식론 뒤집기」, 「과인의 평행론」, 「여성의 세계 재구성」, 「표상과 진리」, 「심적 차이는 역사적 차이」, 「심적 인과: 가능한 시나리오」, 「해석과 사랑」, 「분석 해석학을 위한 서문」, 「내 마음은 내 살갓 바깥에」, 「인식론에서 타자의 중요성」, 「버클리 인식론에서 사물과 타자의 공간」, 「두 딸 문제와 선택 효과」, 「현대 정보 개념 이전의 개념들」, “The Contextuality of the Possessed Values”, “Ontological Interpretation with Contextualism of Accidentals”, 「자연의 원리: 측정과 자연현상」, 「봄의 존재론 해석과 양자운동이론」 따위가 있습니다. 「존재에서 사유까지: 타자, 광장, 신체, 역사」로 2003년 만포학술상을 받았고, 「나, 지금, 여기의 믿음직함」으로 2018년 한국 과학철학회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쓴 책으로는 『우리 말길』, 『두뇌보완계획 100』, 『두뇌보완계획 200』, 『과학 방법』 따위가 있습니다. 후기분석철학의 인식론과 언어 철학, 물리주의와 경험주의 비판, 언어와 사고의 기원, 의미의 형이상학, 자유의지와 심신인과, 심성의 외부주의, 진리 개념의 원초주의, 뜻 믿음 바람 행위의 종합이론, 학문의 우리말 토착화, 양자역학의 존재론 해석, 측정과 물리 현상, 해석과 마음 현상, 믿음의 철학 따위를 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 이해황

대학교 3학년 때 수능 참고서 『언어의 기술』(현 『국어의 기술』) 시리즈를 썼고, 이후 쓴 책들이 누적 180만 부 이상 판매됐습니다. 현재는 오르비클래스 강사로서 『두뇌보완계획100』(김명석 저)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